

## 만성피로증후군과 에이즈의 공통점



문 국진/고대 명예교수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는 술을 마실 수 없게 된다**

만성피로증후군(CFS) 환자 가운데는 기억장애, 피로, 동통, 소화장애 등과 같은 증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때로는 배우자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기능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것은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의 약 1%정도라고 한다.

또 의사들이 만성피로증후군을 진단할 때 다른 질환 특히 우울(우울한 증상을 주로 하는 정신병)과 감별할 때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만성피로증후군 환자가 술(알콜)에 대한 내성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만성피로증후군의 증상을 보이기 전에는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도 발병후에는 술을 마시면 증상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술을 마실수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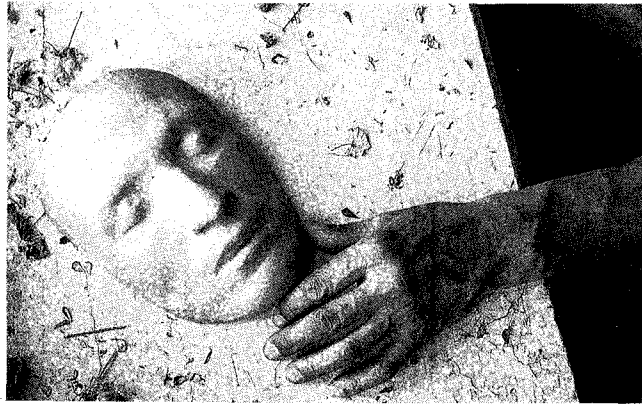
따라서 알콜에 대한 내성의 저하가 다른 질환과 만성피로증후군을 감별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이렇듯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는 알콜에 대한 내성이 저하되거나 또는 약물(藥物)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되는데 이와같은 현상은 면역계의 증가작용(up-regulation)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는 학자가 많다.

면역계의 어떤 구성요소가 만성피로증후군 발병후에 민감하게 소실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발병후에는 술에 대한 내성이 떨어지고 약물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발병으로 인해 면역계에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자는 경향이다.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는 암의 발병률이 높다.**

암세포는 건강한 사람의 몸안에도 있



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의 경우 암이 발병하지 못하는 것은 암세포가 성장증식하여 종양을 형성하기 전에 우리몸의 면역계가 작용하여 암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에이즈 또는 면역계질환자, 그리고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계가 억제된 환자의 경우에는 암세포가 무질서하게 자라게 된다.

1984년 피츠버그대학 암 연구소가 보고한 모 교향악단 단원에 대한 조사결과 58명의 단원중 8명이 전형적인 만성피로증후군증상을 보였는데 이들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NK(Natural Killer)세포라 불리는 암세포가 면역계를 저하시켜 혈액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를 설명하고 증명할 수 없었는데 몇년이 지난 후 건강했던 4명에게 암이 발병하였다. 그중 한명은 B세포성 임파종(혈암의

일종), 두사람은 유암, 그리고 한명은 뇌종양이 발병하였다.

만성피로증후군환자 및 그와 접촉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에 비하여 암발병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며 특히 뇌종양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과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많다.

보고에 의하면 뇌종양이 1990년 이전에 비해 10년간에 걸쳐 300%나 증가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단순히 진단기술의 문제점 때문만이 아니라 만성피로증후군이나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증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가 많다.

#### **만성피로증후군은 에이즈와 공통점이 있다.**

만성피로증후군이나 에이즈는 다같이 면역계가 파괴되는 공통점이 있으며 발

●● 즉 만성피로증후군이나 에이즈가  
 발병되면 면역계가 공통적으로  
 파괴되어 신경계질환 감염증이나 암이  
 속발되는 등의 증상을 갖는다. ●●

병에 있어서도 발열, 피로감, 밤에 흘리는 식은땀, 입과절의 동통, 신경계 이상, 위장장애 등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공통점을 지녔다.

또한 구강(口腔) 간디다증이라고 하는 입안에 진균(곰팡이)이 증식하여 야기되는 질환,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등도 만성피로증후군 에이즈에서 다같이 보이는 공통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또한 만성피로증후군이나 에이즈에서 공통적인 증상으로 NK세포가 불리는 이물이나 암세포가 면역계의 이물질을 막는 방어기전에 손상을 주어 최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한다.

만성피로증후군이나 에이즈 환자는 특정한 바이러스(예를들어 싸이토포메가로 바이러스,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 HHV-6 등)에 대한 항체가 높다.

그중에서도 HHV-6는 면역계와 신경계 세포를 침입하여 파괴하는 것으로 에이즈의 원인 또는 공역인자(共役因子)로 여겨지는데 충분한 파괴력을 면역계세포에 미치며 최근에는 만성피로증후군 발동(發瀾)의 원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한다.

즉 만성피로증후군이나 에이즈가 발병되면 면역계가 공통적으로 파괴되어 신경계질환 감염증이나 암이 속발되는 등의 공통점을 갖는다.

에이즈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자이다. 만성피로증후군이 일종의 후천성면역부전이라고 보고된 것은 양자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면역부전이란’ 면역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수 없음을 의미하며 ‘후천성’이란 미생물(세균 또는 바이러스 등)이나 독물(화학물질 또 핵폐기물 등)을 포함하는 외인(外因)에 의해 야기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두 증후군간에는 상당한 부분에서 공통성을 보인다는 것에 주목하여 연구해 나가야겠다. †

5월은 청소년과  
 가정의 달